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일행의 1845년 입국 장소와 강경 유숙지 연구

차기진\*

- I. 머리말
- II. 김대건 신부 일행의 입국 배경과 입국 장소
  - 1. 상해 출발과 제주도 표착
  - 2. 입국 장소 변경과 강경 황산포 하선
- III. 김대건 신부 일행의 강경 유숙지
  - 1. 강경 유숙 기간
  - 2. 강경 유숙지 고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1845년 8월 31일 중국 상하이로 출발한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 한국의 첫 번째 사제인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와 조선 신자들의 입국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김대건 신부 일행이 조선에 입국한 뒤 유숙했던 장소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과 교회사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김대건 신부 일행은 1845년 10월 12일(일) 오후 8시, 충청도 강경을

\* 양업교회사연구소 소장

통해 조선에 입국하였다. 입국 장소는 강경의 한 포구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곳으로, 그 포구는 ‘강경의 황산포’였다. 따라서 그들의 입국 장소를 ‘강경 나바위’ 혹은 ‘황산포 나바위’로 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그들 일행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황산포 인근의 외딴 곳에 정박한 뒤 어둠을 틈타 상륙하였다. 이때 프랑스 선교사들은 강경 신자들이 준비해 간 조선의 상복으로 갈아입고 하선하였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 선교사들의 유숙지는 김대건 신부와 조선 사람들의 유숙지와는 다른 집이었다. 또 다블뤼 신부와 조선 신자들 대부분이 강경에 도착한 이튿날 그곳을 떠난 반면에 페레올 주교는 강경에서 2개월 이상 머물다가 상경하였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는 임성룡과 함께 약 1개월 동안 강경에 머물다가 새로 배를 매입한 뒤 그 배를 타고 상경하였다.

당시 페레올 주교가 머문 유숙지는 방 두 칸짜리 초가집이었으나, 그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반면에 김대건 신부가 머문 곳은 강경의 신자 구순오의 집으로 확인되었다. 구순오는 김대건 신부가 1845년 서울에서 머물렀을 때부터 알던 신자로,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구순오의 집은 현 강경읍 홍교리 101번지 즉 훗날 홍교리 101-1번지, 102-1번지, 103-1번지로 분할되기 이전의 부지에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우선 강경은 김대건 신부 일행이 조선에 입국하여 첫 일요일(즉 주일) 미사를 봉헌한 장소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강경의 유숙지는 페레올 주교와 김대건 신부가 최종 목적지인 서울로 가기 전에 거처했던 임시 주교관이고 사제관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그곳은 페레올 주교와 김대건 신부가 매일 미사를 봉헌한 장소였고, 김대건 신부의 유숙지는 그가 최초로 성사를 집전한 장소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핵심어** : 김대건 신부, 페레올 주교, 강경, 황산포, 나바위, 다블뤼 신부, 구순오

## I. 머리말

성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1821~1846) 신부는 일찍부터 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사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 천주교회의 수선탁덕(首先鐸德)인 데다가 1846년에 순교자가 되었고, 1925년 7월 5일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79위의 한 명으로 시복되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성웅(聖雄)으로 호칭되기도 했으며, 소설과 연극, 영화의 소재가 되었고,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김대건 신부를 빼놓고는 한국 천주교 순교사는 물론 천주교사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 결과 교회에서 중시하는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와 순교 터, 무덤은 물론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관련 지역들이 성지(순례지) 혹은 사적지로 조성되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김대건 신부의 1845년 입국 장소와 유숙지도 여기에 속한다. 이곳은 그와 함께 조선에 입국한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J. Ferréol, 高 요한) 주교와 성 다블뤼(A. Daveluy, 安敦伊 안토니오) 신부(1857년에 주교 수품)가 조선에 입국한 장소요 유숙지였다는 의미도 지닌다. 아울러 이 유숙지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닐지라도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고 첫 미사를 봉헌한 장소가 될 것이다.

일찍이 샤를르 달레(Ch. Dallet) 신부는 1874년의 저술에서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J. Ferréol, 高 요한) 주교가 <강경에서 바랑(Barran)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0월 29일자 서한><sup>1)</sup>을 토대로 1845년의 입국 장

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동 연구소, 1996, 269~289쪽. 이하 본 자료는 '활동과 업적'으로 약기함.

소를 강경이(Kang-kien-in)로 기록하였다.<sup>2)</sup> 그리고 달레 신부의 저술은 ‘대한성교사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경향신문>의 부록으로 간행되던 《보감》에 연재되었는데, 1910년의 9월호의 《보감》에는 그 내용이 “(1845년) 십월 십이일에 강경포(江景浦) 종용훈 곳에 닳을 주고 씻도다.”라고 수록되어 있다.<sup>3)</sup> 페레올 주교의 서한 내용은 1934년에 발간된 《가톨릭청년》에도 그대로 수록되었다.<sup>4)</sup>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입국 장소는 정확한 고증 없이 다양하게 기록되었다. 우선 <가톨릭시보>에서는 전주교구의 나바위 본당(옛 화산 본당)에서 한옥 성당(1905년 설계, 1907년 완공, 1987년 7월 25일 사적 제318호 지정) 건립 50주년 기념으로 제작하여 1955년 10월 12일에 제막식을 가진 ‘복자 안드레아 김 신부 순교비’를 소개하면서 그 입국 장소를 ‘나바위로 알려져 있는 전북 화산 교회’<sup>5)</sup>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정작 그 순교비 뒷면의 김대건 신부 약력에는 “1845년 10월 12일 밤 충남 황산포 부근에 상륙”으로 적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 입국 장소는 ‘강경(江景) 황산나루’,<sup>6)</sup> ‘은진군 강경리 나바위[羅岩]’,<sup>7)</sup> ‘강경 황산포(黃山浦)’<sup>8)</sup> 등으로 설명되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황산포 나바위’ 혹은 ‘강경

2) Ch.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Tome Second), Paris, 1874, pp.295~301; 안용렬·최석우 역주, 《한국 천주교회사》 하, 분도출판사, 1980, 81~89쪽. 일반적으로 ‘강경’이란 명칭은 1914년 4월 1일(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시행된 행정 구역 개편 때 강경면이 신설되면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훗날의 증언에서 보면, 그 이전에도 이 지역은 행정 구역 명인 은진군 김포면보다는 강경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46년 황해도 해주 감영에 체포된 신자들도 이 지역을 ‘은진 김포’가 아니라 ‘은진 강경이’ 혹은 ‘강경이’로 진술하였다.

3) 《보감》 제4권 205호, 1910년 9월 16일.

4) 《가톨릭청년》 제2권 9호(복자 안드레아 김 신부 특집호), 1934년 9월 5일.

5) <가톨릭시보> 161호, 1955. 11. 20.

6) 김구정, 《성웅 김대건전, 경향잡지사, 1961, 303쪽. 이 책은 역사 소설에 불과하지만, 새로 찾은 역사 기록에 근거한 내용이 많은 뿐만 아니라 이후 김대건 신부의 행적을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7) 유홍렬, 《한국 천주교회사》 상, 가톨릭출판사, 1962, 462쪽.

8) 오기선, 《곡예사 같은 인생 : 사제생활 반세기》, 서광사, 1967, 61쪽; 이원순·허인 편지, 《김대건의 서한》, 정음사, 1975, 235·237쪽; 한국천주교회 창립200주년기념 인천교구준비위원회, 《성지》 I, 성요셉출판사, 1982, 184쪽.

황산포구 나바위 화산(華山) 아래 기슭’, ‘나바위 성당’<sup>9)</sup>이 그들의 입국 장소로 거의 굳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곳은 지금의 나바위 성당 지역(현 전북 익산군 망성면 1158~1159)에 해당한다.

한편 강경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논산천과 강경천이 만나 금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있던 옛 은진군 김포면의 강경포(현 강경을 북옥리) 즉 옥녀봉(玉女峯) 부근이 김대건 신부 일행의 입국 장소라는 전승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먼저 이야기하자면, 김대건 신부의 입국 장소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을 어시장이 있던 강경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sup>10)</sup>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1845년 10월 12일 김대건 신부 일행이 상륙한 지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즉, 그곳이 강경 황산포였는지, 익산의 나바위 즉 화산 아래였는지, 강경포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강경 나바위 혹은 황산포 나바위라는 표현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설명해 보고자 한 것은 ‘김대건 신부 일행이 상륙하여 유숙했던 집은 어디였을까?’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논산시나 강경 본당에서 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그 결과가 확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교회 사적지로서의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9) 김진소, <김대건>, 《한국가톨릭대사전》 2, 1995, 1165쪽; 주평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가톨릭출판사, 1996, 195쪽; 차기진,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교회사연구》 12집, 1997, 114쪽; 김진소, 《전주교구사》 I, 도서출판 빅벨, 1998, 267·453쪽; 양인성, <조선인 사제의 등장>,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129쪽.

10) 김진소, 《전주교구사》 I, 268쪽의 각주 422 참조.

## Ⅱ. 김대건 신부 일행의 입국 배경과 입국 장소

### 1. 상해 출발과 제주도 표착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1836년 12월 3일 마카오로 유학을 떠난 김대건 신부는 1837년부터 1842년까지 그곳 파리외방전교회 대표부 안에 마련된 조선대목구 신학교에서 공부하였고, 1844년 12월 10일 이전에는 페레올 주교의 집전으로 부제품을 받았다. 아마도 그 장소는 만주 조바자츠(小八家子, 현 창춘시 숭녕진 八家子村) 성당이었을 것이다.<sup>11)</sup> 그런 다음 김대건 부제는 비엔먼을 통해 귀국을 시도한 끝에 1845년 1월 15일 서울에 도착했으며, 얼마 후에는 돌우물골(石井洞, 현 서울 중구 소공동)에 마련한 집으로 들어가 비밀리에 활동하였다.<sup>12)</sup> 1836년에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이미 조정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sup>13)</sup>

김대건 부제는 3개월 뒤인 4월 30일(음력 3월 24일) 페레올 주교와

11) 김대건과 동료 최양업(崔良業, 토마스)의 부제 수품 사실은 <페레올 주교가 선양[瀋陽]에서 리브와(Libois) 신부에게 보낸 1844년 12월 10일자 서한>〔《활동과 업적》, 237쪽〕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부제와 함께 조바자츠를 떠나 비엔먼(현 단둥시 鳳凰市 邊門鎮)으로 가는 길이었고, 최양업 부제는 조바자츠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김대건·최양업의 부제 수품 장소는 조바자츠 성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부제 수품 장소를 선양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조현범, <중국 체류 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교회사학》 5호, 2008, 89~90쪽), 선양 천주당이 1878년에서야 완공되므로 1844년 당시에는 서품 장소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페레올 주교가 마카오에서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낸 1845년 5월 25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45쪽 ; <김대건 부제가 서울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3월 27일자 서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161~165쪽 ; 《일성록》 병오 5월 30일, 金大建 공초. 이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은 ‘서한’으로 약기함.

13) 《일성록》 현종 기해 8월 7일, 丁夏祥 공초 ; <고틀랑(Gotteland) 신부가 예수회 장상에게 보낸 1845년 7월 8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51쪽.

약속한 대로 중국 상하이로 가기 위해 마포를 출발한 뒤 한강 어귀에서 중국으로 향했으며, 5월 28일 우송(吳淞)에, 6월 4일에는 상하이에 도착하였다.<sup>14)</sup> 이때 그와 함께 상하이로 간 신자는 현석문(玄錫文, 가롤로), 최형(崔炯, 베드로), 이재의(李在誼, 토마스), 임치화(林致化), 노언익(盧彦益), 임성룡(林成龍, 성 林致伯 요셉의 아들로, 훗날의 세례명은 베드로), 김인원(金仁元)과 다른 4명 등 모두 11명이었다.<sup>15)</sup>

이어 김대건 부제는 1845년 8월 17일 상하이 진자샹(金家巷)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의 집전으로 사제품을 받았고, 8월 31일에는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 그리고 현석문 등 조선 신자 11명과 함께 상하이로 갈 때 타고 갔던 조선 배 즉 ‘라파엘(Raphael)호’라고 명명된 배를 타고 상하이를 출발하였다.<sup>16)</sup> 당시 김대건 신부 일행이 목적지로 삼았던 곳은 조선을 출발했던 곳 즉 서울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한강 어귀의 해안이었다. 이에 대해 페레올 주교는 “우리는 조선 군도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조금 후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그 섬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으며, 오래지 않아 서울로 가는 강어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였다.<sup>17)</sup>

그러나 그들 일행은 목적지인 한강 어귀의 해안으로 갈 수 없었다. 상하이를 출발하여 산둥 반도 쪽으로 가던 중에 라파엘호가 폭풍우를 만나면

14) <고틀랑 신부가 예수회 장상에게 보낸 1845년 7월 8일자 서한> 및 <다블뤼 신부가 바랑(Barran) 신부에게 보낸 1845년 8월 28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51·267쪽; <김대건 부제가 상하이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7월 23일자 서한>, 《서한》, 201~209쪽.

15) <김대건 부제가 상하이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7월 23일자 서한>, 《서한》, 201쪽; <우포도청등록>, 무진(1868년) 4월 2일, 이재의; <추안 및 국안>, 무진 윤4월 4일, 이재의; <페레올 주교가 상하이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8월 28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63쪽; 절두산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소장,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 조사 수속록>(필사본), 회차 100(1886년 11월 3일), 최 베드로의 증언. 후자의 증언자 최 베드로는 최양업(崔良業, 토마스) 신부의 둘째 아우인 최선정(崔善鼎) 베드로(1827~?)를 말한다.

16) <고틀랑 신부가 예수회 장상에게 보낸 1845년 7월 8일자 서한의 9월 12일자 추신> 및 <페레올 주교가 강경에서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0월 29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61·273쪽.

17) <페레올 주교가 강경에서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0월 29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83쪽. 다블뤼 주교의 서한을 통해서도 일행의 목적지가 서울에서 가까운 해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다블뤼 신부가 공동(Kontong)에서 파리와방전교회 신학교 교장에게 보낸 1845년 10월 23일자 서한>, 《다블뤼 문서》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251쪽).

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김대건 신부 일행은 뜻하지 않게 제주도 해안, 정확히 말하면 제주도 서쪽 해안의 한 작은 섬인 지금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앞에 있는 죽도(竹島, 즉 遮歸島)에 표착하였다.<sup>18)</sup> 당시의 상황에 대해 김대건 신부와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①(김대건 신부의 서한) : 9월경에 (중국) 강남을 출발하였습니다. 큰 바다로 밀려나와 여러 차례 폭풍우에 시달렸습니다. 다음에 바람이 거세지고 키가 부러지게 되어 난파하지 않도록 뚝대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항해를 계속 했는데, 강한 역풍으로 제주도까지 밀려갔습니다.<sup>19)</sup>

A-②(페레올 주교의 서한) : 그러나 그 가엾은 안드레아 신부가 큰 오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1845년 9월 28일) 첫 번째 작은 섬에 닿아서 주민들에게서 우리가 도착한 곳이 우리가 상륙하고자 하던 곳(즉 한강 어귀 해안)에서 천 리 이상이나 떨어진 제주도 맞은편 반도 남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놀라움과 고통이 어떠하였겠습니까?<sup>20)</sup>

A-③(다블뤼 신부의 서한) : (9월 27일) 3시경에 섬이 하나 보여 우리는 모두 대단히 놀랐습니다.……새벽에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 섬을 지나자 많은 섬들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역풍이 불어서 우리는 남쪽으로 약간 밀려갔습니다. 저녁 무렵에 날씨가 완전히 평온해져서 우리는 물이 흐르는 대로 실려 갔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작은 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4발이나 되는 닻을 내렸습

18) 서두옥,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제주도 표착지에 관한 연구》, 천주교 제주교구, 1998, 8~9쪽.

19) <김대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1월 20일자 서한>, 《서한》, 349쪽.

20) <페레올 주교가 강경에서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0월 29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83쪽.

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수심이었지요. 다음 날 일요일(9월 28일)이 초조하게 기다려졌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니까요. 섬에 내려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남부에 있는 갯벌에서 아주 가까운 작은 섬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에 어긋나서 저는 거의 낙담할 지경이었습니다. 서울까지는 1,000리도 더 된다니깐요.<sup>21)</sup>

A-③에서 보는 것과 같이 김대건 신부 일행을 태운 라파엘호는 1845년 9월 27일 새벽 3시경에 한 섬을 발견하였고, 이후 더 남쪽으로 밀려가서 저녁 무렵에는 한 작은 섬에 정박했으며, 9월 28일에는 그 섬에 상륙하였다. 이곳이 바로 유인도인 제주도 서쪽의 죽도(차귀도)였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 일행은 이곳에서 물과 식량을 확보하고 조선소가 있던 죽도 앞의 용수 포구에서 배를 수리했으며, 다시 출항 준비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이다.<sup>22)</sup> 분명한 것은 9월 28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 일행은 페레올 주교의 집전으로 제주도 앞의 죽도 선상에서 미사를 봉헌했을 것이고, 따라서 조선 입국 후의 첫 미사 봉헌 장소가 바로 죽도였다는 점이다.

이후 김대건 신부 일행은 최종 목적지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한강 어귀를 거쳐 마포로 들어갈 경우 체포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페레올 주교는 이에 대해 마포를 출발하기 전에 그곳에서 ‘배의 식량을 보통과 달리 장만’ 했으며, 이것을 본 주민들은 ‘이 배가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고 하면서 마포 주민들에게 의심을 산 적이 있음을 경계하였다. 아울러 “우리가 서울로 바로 갔더라면 아마 붙잡혔을

21) <다블뤼 신부가 공동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교장에게 보낸 1845년 10월 23일자 서한>, 《다블뤼 문서》I, 251쪽.

22) 서두옥, 앞의 책, 10쪽. 반면에 페레올 주교는 9월 28일에 제주도를 떠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페레올 주교가 마랑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0월 29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85쪽).

것입니다. 나중에 안 일입니다만, 이 나라 남쪽에 영국배가 한 척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조정은 공포에 쌓여 있었고, 서울 주변을 감시하고 강에 들어오는 모든 배를 아주 세밀하고 엄하게 조사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sup>23)</sup>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에서 표착하였고, 이후 목적지를 변경함으로써 체포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2. 입국 장소 변경과 강경 황산포 하선

김대건 신부 일행이 새 입국 장소로 결정한 곳은 충청도 은진의 강경이었다. 다음의 B-①과 B-②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 일행이 이곳에 도착하여 하선한 것은 일요일인 1845년 10월 12일(음력 9월 12일) 저녁 8시였다. 상하이에서 출발한 지 40여 일 만이었으며, 제주에 표착한 지는 15일 만이었다. 당시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 김대건 신부는 라파엘호의 강경 정박과 일행들의 하선, 유숙지로의 이동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B-①(페레올 주교의 서한) : 우리는 계획을 바꾸어 남도 북쪽의 내륙 60리(필자 주 : 항해 거리이므로 착오로 보인다. 강경 지역은 바다에서 80·90리 이상 떨어져 있다) 되는 조그만 강을 끼고 있는 강경에 정박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얼마 전에 교회에 들어온 신입 교우가 몇 집 있었습니다. 그러자면 끊임없이 경계를 하면서 15일 동안을 항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줄곧 맞바람을 안았었고, 해류는 급하고 암초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바위에 부딪쳤습니다. 가

23) <페레올 주교가 강경에서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0월 29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83쪽. 다블뤼 주교의 서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다블뤼 신부가 공동에서 파리와방전교회 신학교 교장에게 보낸 1845년 10월 23일자 보낸 서한>, 《다블뤼 문서》 I, p.253).

꿈 모래에 걸리기도 하였고, 그보다도 자주 어떤 만(灣)의 안쪽에 멎어서 빠져나갈 곳을 만나기를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선(從船)을 물에 보내서 길을 묻고는 하였습니다. 마침내 (1845년) 10월 12일 우리는 포구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곳에 닻을 내렸습니다(jetâmes l'ancre à quelque distance du port, dans un lieu isolé).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비밀히 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도착을 신자들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밤에 신자 2명이 우리를 자기들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이런 준비가 끝난 다음 사공 두 사람이 우리를 등에 업고 순교자들의 땅에 내려 주었습니다.<sup>24)</sup>

B-②(다블뤼 신부의 서한) : 마침내 10월 12일에 우리는 충청도 강경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항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없는 배로 더 올라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데에 낙심하고 이 항구에서 상륙하기로 했습니다. 하선하기 이틀 전(즉 10월 10일)에 우리는 교우들에게 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 사람을 육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잡힐 뻔했습니다. 우리는 육지로 보낼 사람을 상륙시켜 줄 작은 배를 한 척 불렀습니다. 선원 중의 하나가 우리 배로 와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배는 멀리서 왔으며 돛대들은 조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는 중국 담뱃대들이 있었고 굵은 밧줄도 아주 남아 있는 등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곤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 선원은 온갖 피를 다 부려야 했습니다.……우리는 상하이로 출발한 지 6주만인 10월 12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배에서 내렸습니다.<sup>25)</sup>

24) 위의 서한, 285쪽. 여기에서 말하는 종선은 상하이에서 새로 제작하여 라파엘호에 싣고 온 것이다. 김대건 부제가 조선에서 가지고 갔던 종선은 상하이로 갈 때 폭풍우 속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나온다(〈김대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7월 23일자 서한〉, 《서한》, 203·213쪽).

25) 〈다블뤼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교장에게 쓴 1845년 10월 23일자 보낸 서한〉, 《다블뤼 문서》 I, pp.252~253. 라파엘호에는 종선이 달려 있었지만, 중국에서 제작한 것이라 의심을 살 것이 염려되었으므로 별도로 강경에 있는 작은 배를 한 척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B-③(김대건 신부의 서한) : 역풍의 거센 바람은 우리를 제주도에  
까지 떠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날을 소비하여 강경이라고 부르  
는 항구에 도착하였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역경을 당하지 않고  
신자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sup>26)</sup>

B-④(다블뤼 주교의 기록) : 강경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잇  
는 강가에 위치한 곳이며, 우리가 조선에 도착해서 물에 닿은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sup>27)</sup>

이와 같이 김대건 신부 일행을 태운 라파엘호가 마지막으로 정박한 곳  
은 은진 강경의 한 포구였다. 당시 김대건 신부 일행이 목적지를 은진 강경  
으로 결정한 이유는, B-①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곳에 있는 신입 교  
우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대  
건 신부는 1846년에 체포되어 포도청에서 문초를 받을 때, “은진 (강경)의  
구순오(具順五)는 교우로서 제가 일찍이 친하게 알았는데”<sup>28)</sup>라고 진술하  
였다. 김대건 신부가 은진 강경의 구순오와 교류한 시기는 부제 시절 서울  
의 돌우물골에 거처하던 1845년 1월에서 4월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페레올 주교가 기록한 B-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라파엘호  
가 정박한 곳은 강경의 어느 포구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곳이었다. 또 다블  
뤼 신부의 기록인 B-②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 일행은 강경  
에 도착하기 이틀 전인 10월 10일 어느 지역에 도착한 뒤 일행 중에서 한  
명을 먼저 하선시켜 강경 신자들에게 보냈다. 일행의 도착 사실을 그곳 신

26) <김대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1월 20일자 서한>, 《서한》, 349쪽.

27) A. Daveluy, Vol. 5, *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ée*(전사본), 한국교회사연구소, pp.278~279; 다블뤼 저, 유소연 역,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403쪽.

28) 《일성록》, 현종 12년 병오 5월 30일;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동  
연구소, 1997, 93쪽. 이하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는 ‘체포와 순교’로 약기함.

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하선 준비 즉 선교사들을 위한 상복을 준비해서 자신들을 맞이해 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그들은 하선에 필요한 작은 배를 한 척 빌렸는데, 작은 배의 선원에게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신분이 발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강경 신자들은 김대건 신부 일행이 강경으로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 이는 김대건 신부 일행이 새 입국 장소로 강경을 택한 것은 제주 표착 후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sup>29)</sup>

일행의 하선은 어둠이 내린 저녁 8시에 이루어졌다. 이때 강경 신자 2명이 프랑스 선교사인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위해 방갓(짚으로 만든 커다란 모자)과 상복(굵은 베로 만든 겹옷) 두 벌과 미투리를 준비해 왔고, 손에는 양 끝에 막대가 달린 형짚을 들게 함으로써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였다.<sup>30)</sup> 발각될 위험 요소들을 모두 피해서 하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B-①에서 페레올 주교가 설명한 ‘강경의 어느 포구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곳’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는 훗날의 시복 재판정에 나온 신자들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C-①(김 프란치스코의 증언) : 3~4삭 동안에 김(대건) 부제 서울 돌우물골에서 유하시다가 배를 작만하고 조선 교우들과 한가지로 상해로 가실 때, 위험을 불고하여 다행히 무사 도박(到泊)한 후에 신품(즉 사제 품)에 오르시어 고 주교(즉 페레올 주교)와 안 신부(즉 다블뤼 신부)를 모시고 바다를 건너 강경으로 도박하신지라……<sup>31)</sup>

29) 김대건 부제가 서울에서 상하이로 출발하기 전에 조선 입국 장소로 한강 어귀와 함께 제2의 입국 장소로 강경을 미리 선정해 둔 것 같지도 않다.

30) <페레올 주교가 강경에서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0월 29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85쪽.

31)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 조사 수속록>, 회차 81(1884년 5월 24일), 김 프란치스코의 증언. 증언자 김 프란치스코(1812~?)는 교회 밀사로, 1842년 12월 김대건 신학생을 라오통 비엔면에서,

C-②(최 베드로의 증언) : (김대건 부제는) 1년 동안을 조선에 계실 때 주교와 신부를 모실 비치를 다하시고, 현(석문) 가롤로, 이(재의) 토마스, 최(형) 베드로와 뱃사람 12인(필자 주 : 11명의 잘못)을 데리고 배에 올라 바로 남경(필자 주 : 상하이의 잘못)으로 가셔서 주교를 찾아뵙고 계실 동안에 7품(즉 사제품)을 받으신 후 주교와 신부 두 위(位)를 모시고 강경이 황산 동네에 내리시며, 먼저 서울 와서 안배한 후.....<sup>32)</sup>

김 프란치스코가 증언한 C-①의 내용에는 김대건 신부 일행이 하선한 장소가 강경으로만 나온다. 반면에 최 베드로가 증언한 C-②의 내용에는 그 하선 장소가 ‘강경 황산 동네’로 나온다. 다시 말해 강경 지역의 황산 마을 즉 지금의 강경을 황산리에 하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 수록한 B-①의 ‘포구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곳’은 예전의 황산포 인근 즉 의심을 받지 않고 은닉해 있을 만한 어느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과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을 강경포 인근을 통해 입국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본다면, 김대건 신부 일행은 체포될 위험성 때문에 강경의 황산포, 그것도 황산포 인근의 외딴 곳을 택해 어둠이 내린 저녁 8시에 하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강경을 황산리는 본래 전라도 여산부(礪山府) 북일면에 속해 있다가 고종 32년(1895) 충청도 은진군 김포면(金浦面)에 편입되었다고 한다.<sup>33)</sup>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1872년 지방도>에도 황산

1843년과 1844년 만주 조바자츠와 선양, 그리고 비엔먼에서 페레올 주교를 만났으며, 1845년 1월 김대건 부제를 조선으로 귀국시킨 적이 있었다.

32)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 조사 수속록>, 회차 100(1886년 11월 3일), 최 베드로의 증언.

33) 한글학회 편, 《한국지명총람》 4, 충남편 상, 1974, 168쪽. 그러나 이러한 행정 구역 변경에 대한 근거 자료는 찾을 수 없고, 1914년의 『군면폐합관계서류』(국가기록원, CJA0002562)의 지도에 황산리가 김포면에 편입되어 있음이 나타난다(이철성, <19세기 강경 지역 포구 실태와 인근 민가 지역에 대한 역사 지리적 고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희와 19세기의 강경》,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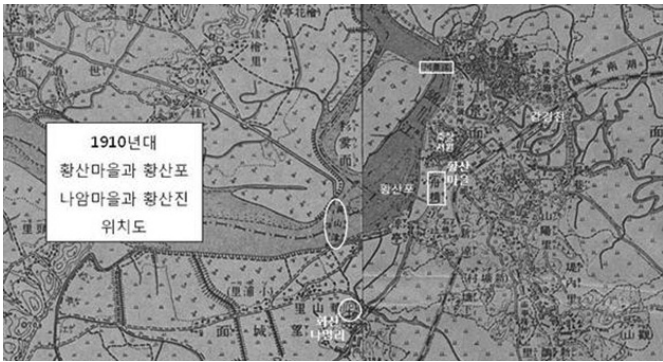
리는 은진군 지도가 아니라 여산부 지도에 나타난다. 또 1872년의 여산부 지도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18세기 중엽의 <비변사인방 안지도> 중 ‘호남 여산부 지도’를 함께 살펴보면, 이곳 황산의 남서쪽에 있던 죽림서원(竹林書院, 일명 황산서원, 현 강경을 금백로 20)과 팔괘정(八卦亭, 현 황산리 86), 임리정(臨履亭, 현 금백로 20-8) 인근 상류에 진선(津船)이 그려져 있거나 진(津)이라는 표시가 있다.<sup>34)</sup> 이 진선 곧 진의 위치가 바로 황산리에서 부여 임천으로 건너가는 배다리[舟橋]<sup>35)</sup> 즉 옛 황산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곳 황산포를 ‘은진군 강경리 나바위’ 혹은 ‘황산포 나바위’, ‘화산(나바위) 성당 아래’로 볼 수 있을까? 앞에서 제시한 지도들을 보면 현재의 전북 익산군 망성면 화산리 나바위[羅岩]는 1845년 당시 전라도

34) 강경진 즉 강경포는 <비변사인방안지도> 중 ‘호서 은진 지도’의 김포면에 나오며, 그 옆에 봉대(烽臺, 현 옥녀봉)가 표시되어 있다. 1872년의 은진군 지도에는 옥녀봉 위치에 강경봉대(江景烽台)만 표시되어 있다.

35) 위의 책, 168쪽.

여산부 북일면 나암리에 속해 있었고, 황산포는 북일면 황산리에 있었다. 현재의 강경 지역에도 나바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으며, 혹 강경 지역에도 다른 나바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김대건 신부 일행의 입국 장소와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기존 기록에 나오는 은진군 강경리 나바위<sup>36)</sup>도 결국에는 전라도의 옛 북일면 황산리가 아니라 북일면 나암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64년경에 편찬된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誌)를 보면, 나암리(나바위)의 나암포(羅岩浦)에는 읍창과 나암창이 있었다.<sup>37)</sup> 1872년의 여산부 지도에도 나암리 아래에 세창(稅倉)과 사창(社倉)이 그려져 있다. 또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에 측도(測圖)된 강경과 함열 지도를 함께 살펴보면,<sup>38)</sup> 망성면 화산리(나암리)에 성당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 금강에 황산진(黃山津)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훗날에는 나암포가

36) 유홍렬, 앞의 책, 462쪽.  
3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지지》(청구기호 : 古4790-37-v.1-15), “(堤堰) 羅岩浦西北二十里 入江景浦之下……(倉庫) 邑倉羅岩倉在羅岩浦.”  
38) 종로도서관 고문헌원문검색서비스(<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에서 제공하는 강경 지도는 대정 5년(1916)에 측도되어 14년에 발행되었고, 함열 지도는 대정 7년에 측도되어 13년에 발행된 것이다. 위 지도 검색은 앞에서 언급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희와 19세기의 강경》(2014) 발표회 때 이철성 교수가 알려준 것이다.



황산진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sup>39)</sup> 그러나 이곳 망성면 나암포나 황산진 (나암리 나바위)은 강경을 황산포(황산리)와 직선거리로 약2km 정도가 떨어져 있으며, 19세기의 행정 구역상으로도 두 지역은 정확히 구분되고 있었다. 따라서본래의 황산포와 나암포(훗날의 황산진)는 동일 장소가 될 수 없으며, 강경 황산포를 강경리 나바위 혹은 황산포 나바위, 나바위 성당 아래로 부르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김대건 신부 일행의 입국 장소를 ‘충남 황산포 부근’ (나바위 성당 순교비)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주 정확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또 ‘강경 황산나루’ 혹은 ‘강경 황산포’ 라고 한 기록도 실제 입국 장소인

39) 김진소 신부는 “망성면 화산리의 화산 끝 나바위 아래에는 본래 나암창이 있었는데, 1872년 이후에는 이를 황산창(黃山倉)이라고 하였다”(《한국지리총서》 읍지 4, 전라도, 아세아문화사, 1983)는 근거를 들어 “나암창을 황산창으로 개칭한 이유는 이곳이 황산포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전주교구사》 I, 453쪽). 나암창이 황산창으로 개칭된 것과 나암포가 황산진으로 불리게 된 것은 같은 연유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황산창이나 황산진은 김대건 신부 일행이 정박했던 본래의 황산마을 황산포와는 다른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황산포 인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입국 장소를 강경포로 기록하거나 황산포에서 2km 떨어져 있는 화산 교회, 강경 나바위, 황산포 나바위, 황산포구 나바위 화산(華山) 아래 기슭 등으로 기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마도 후자들의 오류는 1955년 10월 12일 화산 나바위 성당 경내에 복자 안드레아 김 신부 순교비가 제막되면서 그들 일행의 입국 장소가 강경 황산포 인근에서 나바위 아래로 와전된 결과일 것이다.

### Ⅲ. 김대건 신부 일행의 강경 유숙지

#### 1. 강경 유숙 기간

강경 황산포 인근에 하선한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 김대건 신부, 현석문과 최형 등 조선 신자들은 일단 그곳의 신자 집에 유숙하였다. 그중에서 다블뤼 신부는 하룻밤을 지낸 10월 13일 공동(公洞, 옛 부여현 공동면의 옥가곡) 교우촌으로 갔고,<sup>40)</sup> 페레올 주교의 서한을 보면 조선 신자 대부분도 같은 날 모두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설명되어 있다.<sup>41)</sup> 이때 임성룡만은 김대건 신부와 함께 유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0) <다블뤼 신부가 공동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교장에게 쓴 1845년 10월 23일자 보낸 서한>, 《다블뤼 문서》I, p.254. 다블뤼 신부가 거처하던 공동 교우촌이 옛 부여현 공동면(현 부여군 은산면)에 있었다는 사실은 대전교구 윤종관(가브리엘, 하부내포성지전담) 신부가 알려주었다. 현재 공동이란 이름은 은산면 금공리의 귀골(옛 부여현 공동면 소재지)에 남아 있는데, 다블뤼 신부가 거처하던 공동 교우촌은 이곳 공동(귀골)이 아니라 옛 공동면의 옥가곡(玉佳谷) 즉 현 은산면 가곡리의 ‘옥가실 교우촌’으로 추정된다. 이 옥가실(순교록에는 ‘홍산 옥가실’로 나옴)에서는 병인박해 때 임 아나타시아와 김 바르바라 등이 체포되어 공주에서 순교하였다. 다블뤼 신부의 서한에는 황산포에서 이곳 공동(옥가실)까지 가는 데 9시간이 걸렸고, 당시 이 교우촌에는 일곱 가족 30~32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41) <페레올 주교가 강경에서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0월 29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87~289쪽.

김대건 신부는 얼마 동안 강경에 머물다가 상경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1846년에 체포되어 서울 포도청에서 문초를 받을 때 “임가(즉 임성룡)가 배를 사서 함께 배를 타고 돌아왔으므로 호서의 산천을 정확히 기억해서 그렸습니다.”<sup>42)</sup>라고 하였다. 이미 의심을 받고 있을 라파엘호를 타고 서울로 간다면 신분이 노출되거나 체포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배를 처분하고 새로 배를 매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그는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1월 20일자〉 서한을 서울에서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페레올 주교님과 다블뤼 신부님은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조선어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중국에 있는) 매스트르(J. Maistre, 이 요셉) 신부님과 (최양업) 토마스 부제를 영접할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sup>43)</sup>라고 하였다. 상경하여 신자들과 함께 영입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김대건 신부는 임성룡이 강경에서 새로 매입한 배를 타고 상경하여 페레올 주교의 영접을 준비하는 한편, 주교가 상경하기 전까지 서울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한 것이 분명하다.<sup>44)</sup> 그렇다면 그가 강경에서 머문 기간은 10월 12일부터 새로 배를 매입할 때까지였을 것이다. 11월 20일자 서한으로 미루어볼 때, 그 이전에 상경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김대건 신부가 강경에서 유숙한 기간은 한 달 남짓으로 보편 될 것 같다.

페레올 주교는 이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강경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는 강경에 도착한 지 17일 만인 1845년 10월 29일 그곳 유숙지에서 서한을 작성하였다. 이 서한에서 그는 “사람들은 내가 위험을 가장 덜 당하게 될 곳은 서울이라고 단언합니다. 나는 아마 오는 한

42) 《일성록》, 병오 윤5월 3일; 《체포와 순교》, 101쪽.

43) 《서한》, 349~351쪽.

44) 차기진, 앞의 글, 122~123쪽. 김대건 신부가 강경에 하선했다가 일단 상경한 뒤, 다시 강경으로 내려갔다가 임성룡이 매입한 배를 타고 해로로 상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겨울에 서울로 갈 것입니다.”<sup>45)</sup>라고 하여 1845년 겨울에 상경할 때까지는 강경에 머물 것이라고 하였다. 또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1월 2일자 서한>에서는 상하이에서 사온 서양 마포(麻布)들을 구입한 값의 두 배에 팔았다는 내용과 함께 “중국산 은괴를 조선식 은괴로 녹여 (조선 업전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다행히 이곳에 그런 일에 능숙한 신자가 있습니다.”<sup>46)</sup>라는 내용을 전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곳’은 강경을 말한 것이고, ‘그런 일에 능숙한 신자’는 다음에 설명하는 구순오(具順五)를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페레올 주교는 <서울에서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2월 27일자 서한>에서 “저는 수도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됩니다.”<sup>47)</sup>라고 하면서 상복을 입고 상경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처음에 예정했던 것과 같이 2개월 이상 강경에 머물다가 그 해 겨울 즉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상경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 인용한 김대건 신부의 서한에서 보는 것처럼, 페레올 주교는 강경 유숙지에서 주로 조선어를 공부하였다.

이와 같이 다블뤼 신부는 하룻밤을 강경에서 지냈고, 현석문 등 대부분의 조선 신자들은 바로 귀가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임성룡이 새로 배를 매입할 때까지 한 달 남짓 강경에서 유숙하다가 그와 함께 상경하였다. 반면에 페레올 주교는 2개월 이상 강경에 머물며 조선어를 공부한 뒤에 상경하였다. 그렇다면 교회사에서의 의미로 볼 때, 우선 강경은 김대건 신부 일행이 조선의 내륙에서 첫 일요일(주일) 미사를 봉헌한 장소가 될 것이다. 다만 그들이 황산포 선상에서 미사를 봉헌했는지, 정해진 유숙지로 가서 미사를 봉헌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음으로 페레올 주교와 김대건 신부의 유

45) <페레올 주교가 강경에서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0월 29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89쪽.

46) 수원교회사연구소 편, <페레올 주교가 조선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1월 2일자 서한>,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353쪽.

47) <페레올 주교가 서울에서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2월 27일자 서한>, 《페레올 주교 서한》, 369쪽.

숙지는 최종 목적지인 서울로 가기 전에 거처한 임시 주교관이고 사제관이었으며, 일정 기간 머물면서 매일 미사를 봉헌한 장소였고, 김대건 신부의 유숙지는 그가 최초로 성사를 집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 아마도 페레올 주교는 조선말을 배우기 전까지는 성사 집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2. 강경 유숙지 고증

### 1) 페레올 주교의 기록과 김대건 신부의 진술에 나오는 유숙지

그러면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 김대건 신부가 강경에 상륙한 뒤에 유숙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 이에 대해 페레올 주교는 그들 일행을 안내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그 신자 집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우리는 야음을 타서 앞장을 서서 가는 신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것은 흙으로 짓고 짚으로 지붕을 이은 초라한 토막인데, 방이 둘이고 높이 석 자가 되는 입구가 출입문도 되고 창문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안에서 서기가 힘듭니다. 관대한 우리 집주인의 아내가 앓고 있어서, 주인은 우리에게 숙소를 내주기 위하여 아내를 다른 데로 옮기게 하였습니  
다.

이런 초가에는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습니다. 이런 고급품은 부잣집에나 있다 합니다. 자리를 깐 방바닥에 앉는데, 그 밑에는 부엌의 화덕이 놓여 있어 아늑한 열을 유지하여 줍니다. 신부님, 나는 지금 무릎을 꿇고 쭈그리고 앉자 이 편지를 씁니다. 상자나 내 무릎이 책상 노릇을 합니다. 나는 온종일 내 오막살이 속에 갇혀 있고 밤이 되어야 밖의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sup>48)</sup>

위에서 보는 것처럼 페레올 주교가 유숙했던 집은 방 두 칸짜리 작은 초가집으로, 분명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행을 유숙시키기 위해 그 신자는 앓고 있는 아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하였다. 그렇다면 사랑채나 행랑채 정도가 그 집에 딸려 있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 일행이 강경에서 유숙했던 곳은 페레올 주교가 유숙했던 집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방 두 칸짜리 초가 집에서 성직자 3명, 신자 11명 등 14명의 성인이 머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유숙한다면 의심을 살 것이고, 신분이 노출될 위험성도 다분하였다. 아마도 강경 신자들은 그들 일행을 나누어 유숙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페레올 주교와는 달리 행동이 자유스러운 편이었을 김대건 신부는 다른 신자 집에서 유숙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기록한 D-④에서 보는 것처럼, 김대건 신부는 훗날의 포도청 문초 때 “강경에서 머물던 집은 구순오(具順五)의 집”이라고 정확히 진술하였다. 즉 김대건 신부는 1845년 11월에 상경한 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사목하다가 1846년 5월에는 서해 입국로 탐색을 위해 황해도로 갔고, 6월 5일(음력 5월 12일) 순위도 등산진(登山鎭)에서 체포되어 해주감영과 서울 포도청에서 문초를 받게 된다. 이때 그와 함께 황해도로 갔던 사공 엄수(嚴秀)와 선주 임성룡(林成龍) 등도 체포되어 해주감영에서 문초를 받았다. 이들의 진술에 강경과 구순오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①(사공 엄수의 두 번째 진술) : 금년(1846년) 정월(필자 주 : 실제 날짜는 1845년 11월)에 (임)성룡이 417냥으로 배를 매입하였고, 또 환전(換錢)을 얻어서 저와 함께 은진 강경으로 내려가 쌀 40여 섬과 남초

48) <페레올 주교가 강경에서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0월 29일자 서한>, 《활동과 업적》, 287쪽.

(南草, 즉 담배) 50척(隻)을 사왔습니다. 그때 들으니 그 돈은 곧 서울 사는 김(金)이라는 양반이 준 것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김이라는 양반이 바로 대건인 것 같습니다.<sup>49)</sup>

D-②(선주 임성룡의 세 번째 진술) : 400냥으로 배를 산 일과 강경이 환전은 모두 (김)대건의 요구를 들어 준 데서 나온 것이니 과연 엄수가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400냥은 그 집에서 내어주었고, 환전은 (김)대건이 강경이에 사는 구순오와 거래한 적이 있어 '600냥을 찾아 쓰라'는 뜻으로 편지를 써서 주었으므로 과연 내려가서 찾아 쌀과 담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sup>50)</sup>

D-③(김대건 신부의 열한 번째 포도청 진술) : 은진의 구순오는 교우로서 제가 일찍이 친하게 알았는데, 장사를 널리 벌려 집안이 자못 풍족하였으므로 제가 약간의 돈을 구가에게 맡겨두고 임성룡으로 하여금 찾아 쓰게 하였습니다.<sup>51)</sup>

D-④(김대건 신부의 열다섯 번째 포도청 진술) : 저는 교우를 만나 보고자 작년(1845년) 8월(?)에 이재용(李在容, 필자 주: 이재의 토마스를 말함), 임성룡과 함께 은진 구순오의 집에 가서 머물렀고, 임가가 배를 사서 함께 배를 타고 돌아왔으므로 호서의 산전을 정확히 기억해서 그랬습니다.<sup>52)</sup>

49) 《해서문첩록》(海西文牒錄, 규장각 소장,奎-7641) 중〈登山鎮被捉 犯越耶學罪人金大建等 捉致盤覈形止狀啓〉, 병오 5월; 《체포와 순교》, 55~56쪽, “今年正月分 林成龍以四百十七兩錢 買得船隻 又得換錢 與矣身下往恩津江景伊 米四十餘石南草五十隻買來 而其時得聞 厥錢即京居金班之所給云 而未能詳知矣 到今思之 金似是大建是乎 旅.” 해주감영에서의 문초 날짜는 1846년 5월 20일(양력 6월 13일)이고, 장계 날짜는 5월 21일 이후였다.

50) 《해서문첩록》, 병오 5월; 《체포와 순교》, 59쪽, “四百兩買船與江景伊換錢 皆出於大建之酬應 果如嚴秀所招 而四百兩自渠家出給 換錢段大建有何去來於恩津江景伊居具順五處是加喻 六百兩推用之意爲書以給 故渠爲下往推尋 米草買來是乎 乙遣.”

51) 《일성록》, 병오 5월 26일; 《체포와 순교》, 93쪽, “至於恩津具順五 渠以教友曾所親知 而廣設商業家頗豐足 故渠之如干錢遂授於具哥處 使林成龍推用.”

52) 《일성록》, 병오 윤5월 3일; 《체포와 순교》, 101쪽, “渠欲見教友 昨年八月 與李在容林成龍同往恩津具順五家留連 林哥買得船隻 乘船同歸 故湖西山川歷歷記畫.”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은진(강경) 구순오의 집은 1845년에 김대건 신부와 임성룡 등이 유숙했던 집으로, 페레올 주교의 유숙지와는 다른 집이었다. 현석문·최형 등 다른 신자들도 이 집에서 유숙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D-①과 D-②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구순오는 환전객주(換錢客主)로 상업을 통해 제법 부를 축적했던 신자였고, 1845년 11월에 임성룡이 강경에서 새 배를 매입하는 데도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객주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지만, 김대건 신부나 임성룡은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 페레올 주교가 ‘은괴를 녹여 조선 엽전과 바꾸는 일에 능숙한 신자’도 은괴를 엽전으로 환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환전객주였던 구순오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D-③에서 보는 것과 같이 김대건 신부는 강경의 구순오를 신임하고 있었으며, 그의 도움을 얻어 전교 자금을 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김대건 신부와 함께 상하이를 오가고 강경에서 함께 유숙했던 임성룡과는 달리 새 사공 엄수는 1846년 이전의 일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덧붙여 설명한다면, 김대건 신부가 뒤늦게 구순오의 이름을 직접 밝힌 것은 이미 임성룡의 진술을 통해 그의 이름이 드러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2) 김대건 신부 유숙지의 실체

페레올 주교의 유숙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다. 반면에 김대건 신부가 유숙했던 장소는 구순오의 가옥으로 정확히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은진 구순오의 가옥이 지금의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집의 현재 위치는 오기선(요셉) 신부가 밝혀놓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일찍이 오기선 신부는 대전 본당(현 대흥동 본당) 주임으로 재임(1944~1965년)할 당시에도 풀지 못했던 숙제 즉 김대건 신부가 강경에 상륙하여 유숙했던 장소를 1965년 10월 3일에야 우연히 풀게 된 것처럼 설명하였다. 당시 오기선 신부는 대전에서 서울 대방동 본당의 5대 주임으로 전임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날 강경에 살다가 서울로 이주해 대방동(대방동 산40번지 3통 6반)에 살던 구용녀(具龍女, 안나)의 방문을 받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김대건 신부 일행이 강경 땅에 상륙하여 유숙한 장소를 ‘충남 강경을 홍교동(虹橋洞) 101번지’(현 홍교리 101번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오신부의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65년 10월 3일) 구 안나 부인이 인사하려고 왔다.……(구 안나) “신부님 그 집 얘기는 제가 잘 압니다.……제가 바로 1845년 10월 12일 밤에 그 성직자, 특히 안드레아 김 신부를 숨겨두었던 그 집 주인의 증손녀(4대)입니다.”

(오 신부) “그러면 그 집이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구 안나) “그대로 있구 말구요. 충남 강경을 홍교동 101번지에 그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집에 우리 증조부 구순오(具順五) 그분이 사셨고, 그분이 바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한국에 제일 먼저 자기 집에 모셨던 분이랍니다.……집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은 박봉옥(朴鳳玉) 씨(예수교인)가 살고 있고, 박봉옥 씨 전에 살고 있던 이는 장 씨예요. 그 장 씨의 따님이 장복희(張福姬) 씨인데, 나중에 수녀가 되어서 ‘사벨라 수녀님’ 이라고 한답니다.……우리 증조부 구순오 그분이 결국 교회 심부름을 하고 금전 관계도 하여 성직자와 교회의 일을 돌보고, 더욱이 3명 성직자 특히 김대건 신부님과 연락이 있다고 유다스(즉 밀고자)가 밀

고하여 그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구순오 나오너라.’ 하니 태연자약하게 그 집 대문간에 나서서 두 손을 하늘로 쳐들어 기구를 하시고 ‘자아, 내가 구순오다. 나를 포박할 테면 해라. 나는 우리 김 신부님의 뒤를 따라 치명(致命, 즉 순교)의 영광을 받겠다.’ 하시고 잡혀가셔서 치명하셨다고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옵니다.’<sup>53)</sup>

현재로서는 오기선 신부의 기록이 김대건 신부의 유숙지였던 구순오 가옥의 위치를 밝혀주는 유일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다른 자료가 발견될 때까지 구순오 가옥의 위치 확인은 여기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내용은 구순오의 증손녀가 집안 전승을 토대로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 전승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구 씨 집안의 전승에 나오는 구순오의 순교 사실은 다른 교회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김대건 신부의 체포로 발생한 1846년의 병오박해(丙午迫害) 때 구순오 가족은 모두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체포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지만,<sup>54)</sup> 이후 그의 집은 몰수되고 매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누구에게 매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다블뤼 주교는 훗날의 기록을 통해 조선대목구에서 강경에 집을 한 채 매입하여 어느 신자에게 맡기고, 그의 가족이 이 집에서 살도록 했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음력 5월, 그 시기(필자 주 :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포도청 압송 시

53) 오기선, 앞의 책, 62~63쪽. 구 안나의 집안은 이후 오랫동안 천주교를 멀리하게 되었고, 그녀는 1965년 5월 2일 대방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54) 구순오를 체포하기 위해 포도청에서 포교들을 강경으로 파견한 것은 1846년 5월 25일이었다(《우포도청등록》, 병오 5월 25일; 《체포와 순교》, 69쪽). 그러나 구순오는 이미 피신한 뒤였다(《일성록》, 병오 5월 30일, 윤5월 3일).

기)에 앞서 포교들이 안드레아 신부의 배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강경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우리 대목구에서는 그곳에 집 한 채를 사두었는데, 그 집에서 상당한 금액을 아직 빼내지 못했었습니다. 포교들은 강경으로 내려오는 길에 교우 몇 명을 괴롭혔지만, 심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마련해 놓은 집을 탈취하여 팔았고, 그 집의 가장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sup>55)</sup>

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 강경에 매입해 놓은 집은 구순오를 체포하기 위해 강경으로 내려간 포도청의 포교들에 의해 매각되었다. 또 포교들이 내려오기 전에 피신한 구순오와 달리 이 집의 가장이 체포되었다는 것을 보면, 교회에서 매입한 집은 구순오의 가옥과는 다른 집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교회에서 이 집을 매입한 시기는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는 1846년 6월 5일 이전일 것이 분명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느 곳에 집을 매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강경 본당에서는 최근에 오기선 신부의 기록을 토대로 현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101번지에 있었다는 구순오 가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 때 전라남도 장흥에 살던 김자영(金子永, 1882~1956)의 부친 김경천이 이 일대의 토지와 집을 매입하여 12세였던 아들 김자영과 하인(집사) 부부를 피신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sup>56)</sup> 그러나 누구에게 매입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강경 본당에

55) A. Daveluy, Vol. 5, *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ée*, pp.278~279 ; 다블뤼 저, 유소연 역, 앞의 책, 403쪽.

56) 천주교 강경성당,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숙지 구순오가 실패 조사>(아래아 한글본). 김자영은 1882년 4월 2일 전남 장흥군 부동면 삼산리 655번지에서 의술(한약방)과 농업으로 부를 축적한 김경천(본은 김해)과 한산정(본은 청주) 4대 독자로 태어났고, 1894년 강경으로 피신해 성장한 뒤 물산객주와 검사객주로 활동하다가 1956년에 사망했는데, 이때 강경읍장(江景邑場)으로 5일장이 치러졌다고 한다.

서는 현재의 홍교리 101-1번지(389㎡, 계백로 219번길 37)<sup>57)</sup>와 그 이웃의 102-1번지(87㎡, 계백로 219번길 35-1),<sup>58)</sup> 그리고 103-1번지(329㎡, 계백로 219번길 35)<sup>59)</sup>는 본래 하나의 토지였는데, 대정 원년(1911년) 무렵에 분할 등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구용녀가 오기선 신부에게 증언한 101번지는 분할 이후의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



강경 본당에서는 위의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옛 토지대장과 건물대장은 물론 관련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지역 신자들의 전승에 따라 옛 집의 규모(5칸)나 형태(‘ㄱ’자형 한옥)의 실체를 아울러 밝혀 보려고 하였다.<sup>60)</sup> 그 결과 분할 이전의 부지 위에 있었던 김자영의 가옥은

‘1800년대 중반 무렵’에 건립된 현 홍교리 103-1번지에 있었던 구옥(옛 강경면 본정 32번지 : 구대장 제386호 표제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

57) 현재 101번지는 101-1(389㎡, 개인), 101-3(21㎡, 개인), 101-4(25㎡, 개인), 101-5(5㎡, 개인) 등 4개 필지(440㎡)로 분할되어 있다.

58) 현재 102번지는 102-1(87㎡, 개인), 102-5(2㎡, 개인) 등 2개 필지(89㎡)로 분할되어 있다.

59) 현재 103번지는 103-1(329㎡, 개인), 103-3(1㎡, 공유지) 등 2개 필지(330㎡)로 분할되어 있다.

60) 천주교 강경성당, 앞의 글 참조. 여기에는 구용녀가 옛 집의 규모를 ‘ㄱ’자형 한옥 5칸으로 증언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오기선 신부가 기록해 놓은 구용녀의 증언에는 집의 규모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기록에는 옛 집의 규모는 ‘강경 본당 신자들의 증언’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한다(〈평화신문〉 1042호, 2009년 11월 8일자, ‘대전교구 강경본당, 성 김대건 유숙지 성역화’).

고 그 본체는 일자형(一字形)으로 5칸 혹은 6칸이었으며, 앞쪽에는 2칸 창고가, 뒤쪽에는 3칸 창고가 있었고, 창고 옆으로 하인(집사)의 가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뒤쪽의 3칸 창고는 대정 원년 무렵의 토지 분할 때 101-1번지(85평 : 구대장, 대정 원년 9월 30일)로 합병되고, 여기에 새 건물(목조 아연 22평 : 폐쇄등기부등본 제1506호, 1940년 5월 17일)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102-1번지(80평 : 구대장 제1978호 표제부, 소화 9년 11월 17일)에 있었다는 집사(하인)의 가옥(13평 : 소화 18년 10월 7일)은 훗날 분할과 매각 과정을 거쳐 현재의 가옥(89㎡)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강경 본당에서는 103-1번지에 있었다는 김자영의 구옥 본체가 바로 구용녀가 증언한 김대건 신부의 유숙지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구용녀가 증언한 가옥은 103-1번지에 있었던 가옥이 아니라 101-1번지에 있었던 가옥이다. 또 김자영의 구옥이나 구용녀의 증언에 나오는 가옥은 모두 분할 등기된 이후의 부지에 건립된 집들로 생각된다. 강경 본당에서 설명한 가옥의 규모나 변화 또한 분할 등기 이후의 내용이나 전승에 따른 가옥의 규모에 맞추어 역으로 추정한 설명들이다. 따라서 김자영 가옥의 본체가 강경 본당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1800년대 중반 무렵’에 건립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김대건 신부가 유숙했던 구순오의 가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온 것인지는 의문이다. 구순오가 이 지역에 거주한 것이 이미 160여 년 전의 일이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에 와서 지역 신자들의 전승과 현재의 증언에 따라 유숙지의 규모와 형태를 밝힌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

반면에 구용녀가 증언한 김대건 신부 유숙지의 위치, 대정 원년 무렵에 이루어졌다는 토지 분할 등기 이전의 상황, 1894년에 김자영의 집안에서 이 일대의 토지와 가옥을 매입한 사실 등에는 이의를 달 만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강경 본당에서 조사한 구순오 가옥의 규모와 김자영 가옥들의 위치와는 별개 문제로, 김자영의 부친이 매입한 분할

이전의 토지 즉 현재의 강경읍 홍교리 103-1, 102-1, 101-1번지 일대를 구용녀가 오기선 신부에게 증언한 구순오의 가옥이 있던 부지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해 위의 부지 전체를 넓은 의미에서 김대건 신부의 유숙지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맺음말

1845년 8월 31일 상하이로 출발한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 그리고 김대건 신부와 조선 신자 11명은 9월 28일(일) 제주도 앞의 죽도(차귀도)에 표착한 뒤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곳에서 그들 일행은 처음의 목적지 즉 한강 어귀 대신 충청도 강경으로 최종 입국 장소를 변경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고 온 라파엘호가 1845년 4월 30일에 서울 마포를 출항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의심을 살 만큼 많은 식량을 실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강경에는 구순오를 비롯하여 그들 일행을 영접하고 보호해 줄 만한 새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1845년 10월 12일(일) 김대건 신부 일행은 목적지인 강경에 도착하였다. 그에 앞서 이틀 전 즉 10월 10일에는 어느 장소에 도착한 뒤 한 사람을 강경 신자들에게 보냈고, 강경에 도착해서는 체포될 위험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다. 그들이 배를 정박시킨 곳은 ‘포구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곳’으로, 훗날의 증언에는 강경 황산 마을(현 강경읍 황산리) 즉 ‘강경 황산포 인근’으로 나온다. 그런 다음 12일 밤 8시에 강경 신자들이 하선 준비를 해서 도착하자, 프랑스 선교사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하선하였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입국 장소인 황산포 인근을 은진군 강경리 나바위 혹은 황산포 나바위, 나바위

(화산) 성당 아래 등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륙한 뒤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 김대건 신부와 조선 신자들은 각각 다른 집에 유숙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에서 다블뤼 주교는 하룻밤을 지내고 공동 교우촌으로 갔으며, 대부분의 조선 신자들도 곧바로 귀가하였다. 반면에 김대건 신부와 임성룡은 강경에서 새로 배를 매입하여 상경할 때까지 한 달 남짓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페레올 주교는 강경에서 조선어를 공부하면서 2개월 이상 머물다가 1845년 겨울 즉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상복을 입고 상경하였다.

당시 페레올 주교가 유숙했던 집은 방 두 칸짜리 초가집으로 그리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다. 김대건 신부와 임성룡 등 조선 신자들이 유숙했던 집은 훗날의 진술에서 보는 것처럼 환전객주로서 제법 부유했던 구순오의 집이었다. 구순오는 김대건 신부가 부제 시절 서울 돌우물골에 거처했을 때(1845년 1~4월) 알게 된 신자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며, 임성룡이 배를 매입할 때도 관여한 것 같고, 교회의 전교 자금 운용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회사에서의 의미로 볼 때, 우선 강경은 김대건 신부 일행이 조선의 내륙에서 첫 일요일(주일) 미사를 봉헌한 장소가 된다. 다음으로 페레올 주교와 김대건 신부의 유숙지는 최종 목적지인 서울로 가기 전에 거처한 임시 주교관이요 사제관이었으며, 일정 기간 머물면서 매일 미사를 봉헌한 장소였고, 김대건 신부가 최초로 성사를 집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

김대건 신부가 유숙했던 구순오의 집이 현재의 강경을 흥교리 101번지에 있었다는 사실은 1965년 대방동 본당에 재임하던 오기선 신부가 구순오의 증손녀 구용녀(안나)를 만나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이 구용녀의 증언은 구순오의 집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지만, 그 집안의 전승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집은 1846년 김대건 신부가 해주감영에 체포된 후 구순오 가족이 피신하면서 포교들에

의해 매각되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강경 본당에서는 옛 구순오의 토지와 가옥은 1894년 전라도 장흥에 살던 김자영(金子永, 1882~1956)의 부친 김경천에 의해 매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 김자영의 토지는 대정 원년(1911) 무렵 현 강경을 흥교리 101-1번지, 102-1번지, 103-1번지(현 계백로 219번길 37, 35-1, 35) 등으로 분할 등기되기 이전의 넓은 토지였으며, 바로 이곳에 김자영의 구옥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곳을 옛 구순오의 집 즉 김대건 신부의 유숙지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분할되기 이전의 전체 부지가 모두 김대건 신부의 유숙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955년에 ‘복자 안드레아 김 신부 순교비’가 건립된 나바위 성당은 이후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으며, 김대건 신부를 공경하고 그 시성을 기원하는 자발적인 기도 봉헌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다. 또 나바위 성지는 1987년에 사적지로 지정된 옛 한옥 성당은 물론 순례자들의 발자취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강경에 조성될 입국 장소와 유숙지가 나바위 성지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와 연계되어 훌륭한 순례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일성록》, 《보감》, 《가톨릭청년》, 〈가톨릭시보〉, 〈1872년 지방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비변사인방안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 《대동지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海西文牒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 조사 수속록〉(절두산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소장)

Ch.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Tome Second), Paris, 1874 ;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 천주교회사》 하, 분도출판사, 1980.

A. Daveluy, Vol. 5, *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ée*(전사본),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 다블뤼 저, 유소연 역,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한글학회 편, 《한국지명총람》 4, 충남편 상, 197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다블뤼 문서》 I, 동 연구소, 199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동 연구소, 199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동 연구소, 199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동 연구소, 1997.

수원교회사연구소 편,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김구정, 《성웅 김대건전》, 경향잡지사, 1961.

유홍렬, 《한국 천주교회사》 상, 가톨릭출판사, 1962.

오기선, 《곡예사 같은 인생 : 사제생활 반세기》, 서광사, 1967.

이원순·허인 편저, 《김대건의 서한》, 정음사, 1975.

한국천주교회 창립200주년기념 인천교구준비위원회, 《성지》 I, 성요셉출판사, 1982.

- 김진소, <김대건>, 《한국가톨릭대사전》 2, 1995.
- 주평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가톨릭출판사, 1996.
- 차기진,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교회사연구》 12집, 1997.
- 김진소, 《전주교구사》 I, 도서출판 빅벨, 1998.
- 서두옥,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제주도 표착지에 관한 연구》, 천주교 제주교구, 1998.
- 조현범, <중국 체류 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교회사학》 5호, 2008.
- 양인성, <조선인 사제의 등장>, 《한국 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 이철성, <19세기 강경 지역 포구 실태와 인근 민가 지역에 대한 역사 지리적 고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허와 19세기의 강경》,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4.
- 천주교 강경성당,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숙지 구순오가 실태 조사> (아래아 한글본).
- 종로도서관 고문헌원문검색서비스(<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

〈Abstract〉

A study on the 1845's entry place &  
accommodation of Kangkyeong  
which was connected with St. Kim Dae-keon  
and his company

Cha, Ki-jin

Director, Yang-up Research institute for Church History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ntry place of Mgr. J. Ferréol(高 John) who was the 3rd Vicar Apostolic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Fr. A. Daveluy(安敦伊 Antonio), Fr. Andrew Kim Dae-keon(金大建, 1821~1846) who was the first priest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and 11 of Korea believers. They had left Shanghai of China on August 31, 1845.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accommodation of Kangkyeong(江景) in Chungcheong Province which was connected with Fr. Andrew Kim and his company & to clarify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it and to explain the meanings of the church history.

Fr. Andrew Kim and his company entered to Korea through Kangkyeong in 1845, on Sunday, October 12 at 8pm. The entry place was remote place, a little bit away from one port of Kangkyeong. The port was named

Hwangsanpo(黃山浦). Therefore, it is not right to write their entry place such as ‘Kangkyeong Nabawi[羅岩]’ or ‘Hwangsanpo Nabawi’. Then they docked in a remote place near Hwangsanpo and landed under the cover of darkness because they feared to be seen. At this time, French missionaries disembarked after wearing mourning clothes which was prepared by Kangkyeong believers.

Contrary to what is already known, the French missionaries’ accommodation was different from that of Fr. Andrew Kim and Korea believers. Nay more, Fr. A. Daveluy and most of Koea believers departed Kangkyeong the next day, but Mgr. J. Ferréol came up to Seoul after stayed at Kangkyeong for more than two months. And Fr. Andrew Kim stayed at Kangkyeong for about 1 month with Im Seong-ryong(林成龍), then he purchased the ship and came up to Seoul take the ship.

At that time, the thatched house which Mgr. J. Ferréol was stayed had two bedrooms. But the exact location of the house can’t be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the house which was Fr. Andrew Kim’s accommodation was confirmed Ku sun-o(具順五)’s house in Kangkyeong. Ku sun-o was believer who Fr. Andrew Kim knew very well from 1845. Then Fr. Andrew Kim was staying in Seoul and Ku sun-o gave him a lot of help. The Ku sun-o’s house was in Hongkoy-ri(虹橋里), Kangkyeong-eup, 101 street address now. This site was later divided by Hongkoy-ri 101-1, 102-1, 103-1 street address.

When viewed from the above, Kangkyeong has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there was was a place where Fr. Andrew Kim and his company dedicate the first Sunday Mass. Second, the accommodations of Kangkyeong were temporary miter & rectory where Mgr. J. Ferréol & Fr.

Andrew Kim stayed before went to Seoul, the final destination. Third, the accommodations were places where they dedicated to Mass every day and the accommodation of Fr. Andrew Kim was a place where he celebrated sacrament for the first time.

**Keywords :** Andrew Kim Dae-keon(金大建), Mgr. J. Ferréol, Kangkyeong(江景), Hwangsanpo(黃山浦), Nabawi[羅岩], Fr. A. Daveluy, Kusun-o(具順五)

투고일 : 2014.12. 4

심사일 : 2014.12.16

게재확정일 : 2014.12.22